

# 항공업계, 사이판 노선 조심스런 첫 발... 수익성은 '글썸'

한국-사이판 '트래블 버블' 시작  
아시아나·제주항공 등 운항 재개  
국내 코로나 확진자 연일 증가에  
트래블 버블 서킷 브레이커 우려

예상보다 지연될 것으로 보였던 트래블 버블이 시행되면서 국제선이 재개됐다. 하지만 이번 여름 휴가철 수익성을 기대하긴 힘들 것이라는 시각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4일부터 한국과 사이판 사이 트래블 버블(여행 안전 권역)이 시작됐다. 이에 따라 보건 당국이 승인한 양국 국적자 등이 코로나 백신을 접종한 후 14일이 지나면 입국이 허용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사이판 정부와 코로나로 중단된 해외여행을 재개하기 위해 트래블 버블 협정을 맺은 바 있다. 다만 트래블 버블에도 자국 보건당국에서 발급한 예방접종증서와 출발 전 72시간 이내에 받은 코로나 검사 음성 확인서(PCR)를 소지해야 한다. 또, 관광은 단체관광만 된다.

최근 업계에서는 사이판과의 트래블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뉴스시스

버블이 당초 예상보다 지연돼 다음 달 초에나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사이판 현지에서 한국 여행객이 묵을 호텔이 지정되지 않아서다. 하지만 사이판 정부가 사이판 노선의 운항 재개 직전 국토부에 호텔 2곳을 지정하면서 트래블 버블이 가능해졌다.

먼저 지난 24일 아시아나항공과 제주항공이 인천-사이판 노선에 항공기를 띄웠다. 이어 티웨이항공도 오는 29일 같은 노선을 운항할 계획이다. 또, 티웨이항공은 오는 31일 인천-괌 노선을 띄울 예정이다. 해당 노선을 대한항공과

에어서울도 각각 다음 달 5일과 12일 운항을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당장 이번 여름 휴가철부터 트래블 버블을 통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 기대가 적다. 통상 여름 휴가철은 항공사가 국제선 운항을 통해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는 성수기로 여겨진다. 하지만 국제선 재개에도 국내 코로나 확산 상황으로 인해 당장 국제선을 띄워도 여행 심리가 회복되긴 힘들다는 것이다.

실제 국내 확진자 수는 연일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국내 일일 신규 확진

자 수는 지난 24일 0시 기준 1,629명으로 나흘 연속 1,600명대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수도권은 이미 4단계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하고, 내달 8일까지 2주 연장했다. 또, 비수도권 지역도 거리두기 조치 관련 단계 강화가 고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확산 추세에 트래블 버블의 중단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항공 업계가 트래블 버블의 효과 작을 것이라고 보는 이유기도 하다.

트래블 버블 합의에는 '서킷 브레이커' 조항이 있다. 이는 양국 중 한 곳에 서라도 코로나 상황이 악화하면 상대국에서 트래블 버블을 일시 중단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국내 코로나 확진자가 더 늘면 언제든 트래블 버블도 중단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한편 국제선 여객 수는 여전히 회복되지 못했다. 국토부 항공 포털에 따르면 지난 6월 한 달간 국제선을 이용한 여객은 24만6,316명을 기록했다. 이는 코로나 이전인 2019년 6월 770만5,223명 대비 약 97% 줄어든 수준이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 LG유플러스-티아아

### 공작기계 관리 솔루션 U+스마트팩토리 협력

LG유플러스가 스마트팩토리 사업에 앞장선다.

LG유플러스는 스마트팩토리 전문 기업 티아아와 함께 'U+스마트팩토리 공작기계 설비모니터링 사업'을 협력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티아아는 공장 자동화, 스마트팩토리 솔루션을 개발·공급하는 기업으로 무선통신망을 이용한 스마트팩토리 솔루션에 특화돼 있다. 티아아의 '공작기계 관리 솔루션'으로 공장 내에서 운용하는 공작기계 운용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생산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서버를 공장에 직접 구축했지만, 앞으로는 금속가공 등에 활용하는 공작기계를 5G 네트워크로 관리하도록 솔루션을 업그레이드할 예정이다.

티아아가 만든 APDM(Active Predictive Maintenance), ABB(Active Block Box) 등 엣지 디바이스(edge device)는 공작기계에서 수집한 생산, 품질, 설비상태, 가공정보 등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전달한다. 데이터는 고객사의 단말기에서 관리할 수 있는 정보로 가공한다.

/김순복 기자 sunbok@

# 르노삼성 'QM6 LPG 모델' 흥행... 2년 만에 6만대 판매

넉넉한 공간 확보로 패밀리카 부상  
고유가 시대 LPG 차량 관심 높아

르노삼성자동차의 대표 스포츠유틸리티차(SUV) QM6가 LPG 모델의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기존 LPG 모델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적재공간을 확보하는 등 경쟁력을 앞세워 출시 2년여 만에 누적 출고 대수 6만대를 달성했다.

25일 르노삼성에 따르면 QM6 LPe는 세단 모델 중심이던 LPG 차량 시장에서 국내 유일의 LPG SUV로서 편안하고 실용적인 공간 활용성과 뛰어난 경제성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모델이다. QM6 LPe는 2019년 LPG 차량의 일반 판매 허용에 맞춰 그해 6월 첫 선을 보였으며, 올 6월까지 2년 동안 59,334대가 판매되었다. 이후 QM6 LPe의 총 판매 대수는 7월 중순 기준으로 6만대를 돌파했다.

QM6 LPe 모델 출시 이후 국내 LPG 차량 시장은 새로운 트렌드를 맞게 되었다. 경쟁사의 기존 LPG 차량들이 주



르노삼성 QM6.

로 택시, 렌터카 등 법인 판매 목적을 위한 상품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QM6 LPe는 차량 기획 단계부터 개인 고객들이 편안하고 경제적인 패밀리카로 사용할 수 있도록 상품 구성이 이루어졌다. 첫 출시 후 지난 달까지 누적 판매 자료를 보면 QM6 LPe 구매 고객 중 약 40%가 최상위 트림인 RE 시그니처와 고급 라인인 프리미어 모델을 선택했을 정도다.

택시 전용 모델이 없음에도 QM6 LPe 택시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점도 특징적이다. QM6 LPe는 중형 SUV에 걸맞은 넉넉한 2열 거주 공간과 일반 SUV 수준의 트렁크 공간(기본 562L, 2열 시트 폴딩 시 1576L)을 제공한다.

이 같은 높은 고객 만족도와 1회 충전으로 약 534km를 주행할 수 있는 뛰어난 경제성이 입소문을 타며 택시 모델로 사용되는 QM6 LPe가 점차 늘어나

고 있다.

QM6 LPe는 스페어타이어가 위치한 트렁크 플로어 하단에 LPG 도넛탱크를 탑재해 기존 LPG 차량의 단점이던 협소한 트렁크 공간 문제를 보완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받은 도넛탱크 고정기술로 후방 충돌 사고 시 2열 시트 탑승자의 안전까지도 최대한 확보했다. 3세대 LPLi(Liquid Petroleum Liquid Injection) 방식 엔진을 적용해 주행 성능은 물론 겨울철 시동불량 우려도 말끔히 해소했다.

김태준 르노삼성 영업마케팅본부장은 "최근 고유가 흐름 속에서 경제성은 높고 미세먼지 배출은 적은 LPG 차량에 고객들의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경제성과 친환경성은 물론, 특히 받은 안전과 우수한 주행 안정성, 완성도 높은 디자인까지 갖춘 국내 유일 LPG SUV QM6 LPe가 지난해 이뤄냈던 국내 LPG 차량 1등의 성과를 올해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 KT-아이지에이웍스

### 미디어 광고 산업 혁신 빅데이터 협력·제휴

KT가 미디어 광고 산업에서 TV와 모바일 영역 간 빅데이터 결합 등을 통해 디지털 혁신에 나선다.

KT는 국내 1위 모바일 빅데이터 플랫폼 기업 아이지에이웍스와 데이터 협력 및 사업 제휴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5일 밝혔다. KT가 출시한 '어드레사블(Addressable) TV' 광고상품에 이어 TV와 모바일을 통합한 미디어 광고 산업 혁신을 가속하기 위해서다.

이번 업무협약식은 KT 미디어플랫폼사업본부장 김훈배 전무와 아이지에이웍스 마국성 대표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비대면 행사로 진행했다.

아이지에이웍스는 하루 평균 3500만 명, 17억 건 규모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학습하는 모바일 데이터 관리 플랫폼을 운영 중이다. 시장 전체를 조망할 수 있어 국내 대표 모바일 마케팅 플랫폼으로 평가받고 있다.

KT와 아이지에이웍스가 보유한 IP TV와 모바일 이중 영역 데이터를 결합하면 TV 광고 시청과 타킷 고객의 행동 변화 간 연관성을 정밀하게 도출할 수 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양사는 TV 시청 패턴이나 모바일 이용 행태와 관련한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신규 비즈니스 모델 발굴에 나선다.

/김순복 기자

# 현대차그룹, UL과 'SLBESS 안전성 강화' 나선다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에너지 저장 장치)

'UL 시그니처 솔루션' 도입 등  
다각적 상호 협력 추진 계획

현대자동차그룹이 글로벌 안전인증 기업인 UL과 함께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에너지 저장 장치(이하 SLBESS)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략적인 협업을 추진한다.

현대차그룹은 UL과 'SLBESS제품 인증 및 실증 관련 포괄적 업무협약(MOU)'을 최근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UL 코리아에서 열린 관련 협약식에는 현대차그룹 이노베이션담당 지영조 사장, UL 사지브 제수다스 커머셜 총괄 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전기차 배터리를 재사용한 SLBESS와 관련해 ▲ 신뢰성 제고를 위한 차별화된 'UL 시그니처 솔루션' 도입 ▲ 전용 UL 평가기준 공동 개발 ▲ 북미 실증사업 수행을 위한 다각적인 상호 협력을 추진할 계획

이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협약을 통해 SLBESS개발 초기단계부터 특정 제품의 안전성을 엄격하게 검증하는 'UL 시그니처 솔루션'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SLBESS의 근본적인 안전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안전인증에 소요되는 시간까지 단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 현대차그룹의 SLBESS기술과 모듈·팩 단위 등 전기차 배터리의 세부구

조적 특징까지 반영한 UL평가기준을 공동 개발해 글로벌 최고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120년 역사를 가진 UL은 안전뿐만 아니라 다양한 제품의 성능, 환경 등과 관련해 전세계에 시험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철저한 UL 안전규격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 시에 필수로 여겨지는 안전인증과 제품검증 등을 제공한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UL과의 협력을 통해 SLBESS의 품질 향상을 위한 가이드라인 수립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신뢰도까지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